

## [주제발표 2] 꿈과 희망을 누리는 누리과정을 위하여

- 이 영 환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누리과정’은 무상교육·보육 정책인 동시에 국가수준의 유아교육·보육과정으로 취학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2011년 5월에 만5세 공통과정으로 발표되어 고시(9월), 해설서(11월)와 지침서(12월)개발과 시행(2012년 3월), 이후 2013년부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시행되었다. 정책으로서의 교육과정은 필연적으로 짧은 기간, 한시적 위원회 구성을 통해 개편될 수밖에 없다(조상연, 2014)는 지적처럼 누리과정은 수요자인 유아와 부모를 비롯하여 장애와 다문화 등의 취약계층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출발부터 불가능하였으며, 보육·유아교육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 TFT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누리과정 도입 이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교육·보육과정의 획일적으로 운영되며 다양성을 잃어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운영의 자율화·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의 목적을 담고 있어야 하지만 누리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목적이나 목표, 내용 요소들이 오늘날 그리고 미래의 사회에서 요구하는 바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이경화, 2016)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에서부터 현장에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의 활동을 그대로 적용하는 문제점,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이 미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해 보도록 한다.

### 1. 누리과정 구성에서의 문제

먼저 누리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역량을 담고 있지 못하였다는 지적은 누리과정 제정 단계에서부터 지

적되어 왔다. 누리과정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지향이 약하며(이경화, 2017), 가치중립적인 내용지식에 초점을 둬으로써 오히려 미학적, 생태적, 공공선이라는 인류애적 가치를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임부연, 2017)는 다양한 지적을 숙고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지향하여야 할 인간상과 오늘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요구하는 교육이념이 누리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누리과정 편성과 운영의 기준 문제이다. 표준보육과정과 누리과정을 보면 연령별 발달 속도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으며, 목표도 연계되어 있지만(김은설, 2015),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준보육과정은 어린이집 운영시간인 12시간에 맞추어 편성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을 포함하도록 해설서에 명시한 데 비해, 누리과정은 1일 4~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일상생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일 4~5시간 운영의 의미가 모호하다. 유아가 교육·보육 받는 모든 시간이 누리과정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으며, 누리과정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sup>1)</sup>는 주장도 제기된다.

셋째, 국가에서 고시하는 보육·유아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 유치원 교육에 대한 큰 틀과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5개 내용 영역과 내용범주-내용-(연령별)세부내용<sup>2)</sup>으로, 지나치게 상세하게 교육내용을 분절화, 구체화하고 있다. ‘관심을 가진다, 특성을 안다, 차이를 구분 한다.’의 차이가 언어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에서 지각과 감각의 차이는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언어의 권력화가 나타나고 있고, 교사는 ‘차이를 느끼니?’ ‘차이를 구분하여 보자.’라는 발문으로 상호작용을 도식화해야 하는 압박감을 가지게 되어 놀이는 사라지고 즐겁지 않은 교육과정을 실행하게 한다(임부연, 2017).

---

1) 김은영, 강은진, 염혜경(2017)은 누리과정 개정(안)에서 시간 배당에서 1일 4시간 기준으로 편성할 것과 실내자유선택놀이 1시간과 바깥놀이 1시간을 포함할 것을 명시하였다.  
2) 연령별 4~5개의 내용범주, 각 내용범주 당 2~4개의 세부내용으로, 총 20개의 내용범주와 50~60개의 내용, 그리고 약 369개의 세부내용으로 제시되고 있다.

## 2. 누리과정 실행에서의 문제

누리과정 도입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현장의 교육과정 획일화 문제가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다. 획일화의 문제는 먼저 누리과정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누리과정이 획일화된다는 점이 지적된다. 누리과정의 세부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연령에 따라 동사의 표현만 바뀌었을 뿐 실제적인 차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누리과정 세부 내용 제시에 있어서 연령 구분이 아닌 좀 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수준별 제시 등의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획일화 문제는 누리과정 자체의 문제보다는 누리과정을 운영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획일화 문제는 교사가 지나치게 교사용 지도서에 의존함으로써 발생한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고시문, 해설서와 지침서, 교사용지도를 동일시하거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교사용지도서가 국가가 제시한 유일한 국정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이경화, 2017)는 지적이다. 누리과정 운영시간과 일과시간이 획일화되어 있고(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지도서의 활동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며(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누리과정 지도서가 획일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김윤희, 2014) 교사들은 자율성이 강조되는 유아교육 과정이 아니라 기술공학적인 입장에서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의 편의를 위해 제공한 CD와 지도서가 오히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능력을 방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사의 교육·보육과정 재구성 역량 강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지침서와 CD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은 다양하고, 생활주제 중심 통합방식만이 유일한 정답이 아니며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 합의된 적도 없다(이경화, 2016). 그러나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는 ‘생활주제 중심 통합’이라는 교육과정 내용 조직의 한 가지 방식만을 소개하는 1종을 배부했다는 데 있다. 현장에서의 하루일과

는 주제에 따라 교사용지도서에 나타난 활동<sup>3)</sup>을 재현하는 교수방법을 주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

셋째, 어린이집과 유치원 평가에서 누리과정 실행 여부가 반영된다는 점이 누리과정의 획일적 실행을 결과하였다. 평가는 기관의 재정적 투명성과 시설·설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지만 한, 평가지표에서는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 ‘협업적 교육과정’, ‘가르침의 순간 지향 교육과정’의 개념이 배제되어 있으며(이경화, 2014), 누리과정의 충실한 적용이라는 명분으로 누리과정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를 체크(김영명, 2017)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연간, 월간, 주간, 일일 계획안에 의거하여 운영한다는 점은 과도한 문서작성을 유도하며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 교사는 과도하게 교수계획안을 세밀하게 작성해야 하고, 또 교수계획안은 평가에서 증빙자료로 활용되어야 하므로 그 자체가 교육과정을 잘 실행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된다. 계획서는 교사의 자유로운 교수방법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왜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책이 될 여지가 크므로, 교사는 계획서대로 진행하는데 초점을 두고, 놀이보다는 오직 구상된 계획서만 남게 된다(임부연, 2017)

다섯째, 놀이는 누리과정에서 강조되는 교육철학이지만 교육현장에서는 놀이가 본래적 의미와 달리 이해되거나 실천되고 있다. 놀이는 선천적으로 비구조적이며 유아 스스로 선택해서 활동했을 때를 진정한 의미의 놀이이다. 주제에 따라 구성된 ‘실내자유선택활동’은 제공된 교구, 영역의 제한, 인원의 제한, 안전에 대한 규칙, 놀이 방법 등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내된 놀이이며, 진정한 의미의 놀이, 즉 “진짜” 놀이가 될 수 없다. 또한 평가인증에서는 하루 일과에서 일정 시간 이상의 자유놀이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내에서 2시간 30분 이상, 실외에서 1시간 이상 매일 이루어질 때 충분히

---

3) 누리과정은 11개의(실제 16개 이상) 생활주제에 각 생활주제마다 4개의 소주제를 가진다. 각 주제마다 10-20개 정도의 대소집단 활동이 개발되면서 1개의 생활주제 당 50-60개의 단위활동을 가져, 한 연령 당 총 600여개의 활동계획안을 갖게 되었다. 이는 180일의 교육일수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방대한 양이 되었으며, 이를 만 3-5세로 종합하면 2000여개(정확히 2116개)의 단위 활동안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자유놀이를 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놀이라는 것은 실내와 실외로 나누어지지 않으며, 더욱이 실외는 유아에게 가장 좋은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임에도 실외에서 충분히 놀 시간을 제약하는 셈이다(김미소, 서영숙, 2018).

### 3. 제안

#### 가. 누리과정 의미와 개념 명료화

누리과정의 두 가지 의미<sup>4)</sup>, 즉 ‘국가수준 보육·유아교육과정’과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정책’을 구분하여 명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누리과정의 두 가지 의미를 구분하여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개념과 정체성을 확보할 시기이다.

#### 나. 무상 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변화

핀란드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육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지만 보편적 지원, 차등지원, 무상지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아동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은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뿐, 가구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sup>5)</sup>. 반면 ECEC 비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지만 전액 무상은 아니다(이윤진, 정도상, 2015). 무상 보육·유아교육 정책은 비용의 동일한 지원 정책에서 영유아가 ‘같은 질의 보육·유아교육’을 이용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소득의 많고 적음이나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이루어져서는 안 되지만 소득과 부모의 취업에 따라 비용 지불에 있어서는

4) ‘누리과정’은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누리과정 리플렛, 2012). 또한 영유아보육법의 경우, 법에서는 교육과정으로서의 보육과정 의미로, 시행령에서는 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규칙에서는 다시 교육과정의 의미를 담고 있다.

5) 빠이바꼬띠(day care center) 비용은 가구소득, 가족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0€(유로)에서 최대 254€(유로)까지 차이가 크다. 0€(유로)를 지급한 비율은 전체의 16%정도이며 오히려 254€(유로)를 지불한 비율이 27.3%로 가장 많다(이윤진, 정도상, 2015).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김영명, 2017). 또한 양질의 유아교육·보육 비용 대신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한지의 여부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외부 특별활동 비용을 부모가 지불하고 있는 정책이 적절한지 검토되어야 한다.

### 나. 누리과정 구성에서의 제안

국가수준의 교육·보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이 현장을 구속하는 문서로 작동하기보다 현장에 큰 방향성을 제공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지침서로 안착하여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첫째, 핵심역량은 인간의 전 생애에 걸쳐 기반이 되는 능력이며, 특히 생애초기에는 전 생애능력(life long competence)의 기초가 구축되기 때문에 국가들마다 생애초기 핵심역량에 기초하여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있다. 전반적인 교육이나 유아교육의 국제적인 동향과 함께 최근 논의되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미래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내용을 누리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sup>6)</sup>. 누리과정에 포함될 유아기 핵심역량을 추출하는 작업에서부터 핵심역량이 전 생애에 걸쳐 연계되도록 하는 것,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성취 수준 설정과 평가에 대한 부분 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세심하게 숙고되어야 한다.

둘째, 호주 EYLF<sup>7)</sup>의 교사 지침서에서는 모든 교육과정은 유아들의 가장 좋아하는 흥미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이어야 하며 이는 교육의 실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EYLF는 획일화된 형식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교육계

6) OECD 국가의 유아교육과정은 새로운 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ICT 기술, 외국어 학습, 윤리와 시민의식 발달, 종교학습, 건강과 안녕 등의 새로운 영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김은영, 강은진, 염혜경(2017)은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에서 제시한 홍익인간의 이념과 교육의 목적을 명시하고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의 4가지를 그리고 누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기루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6가지를 제안하였다.

7) EYLF(Early Years Learning Framework for Australia: Belonging, Being, Becoming)

획안도, 일정한 모델도 아니며 정해진 틀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도 아니며 자세한 안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실행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을 바탕으로 교육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이며 반영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유희정, 2016). 누리과정 내용이 너무 많다는 것과 이러한 내용을 모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 누리과정이 획일화된다는 선행연구 지적을 고려하여 세부내용을 축소하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은 내용 범주와 내용 수준만 제시하고 나머지 세부 내용은 시·도 교육청이나 단위 유치원 자율로 설정하도록 남겨두는 것도 현장의 자율성 존중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김은영, 강은진, 엄혜경, 2017).

셋째, 교육강국 핀란드 교육체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중앙집권적 교육에서 지방분권적 교육으로, Top-down 교육에서 Bottom-up교육으로의 변화가 모색되어 왔으며 모든 아동에게 동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는 평등의 교육을 위한 여정이었다. 탈중앙화, 학교 자율성, 향상, 보다 강력한 학교 정체성의 확보를 핵심 사항으로 내세우면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하고 노력하는 등, 지역 단위 학교가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적용하였다(윤은주, 2015)는 점에서 누리과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누리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유아의 전인적 성장발달과 행복을 추구하고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는 유아 중심의 교육·보육과정이다. 반면 교육 방법과 교육자료를 제시하는 지도서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현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지원자료이며 사회문화적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해야 하며, 보육·교육현장에서 누리과정을 재구성되어야 한다(이경화, 2016).

#### 다. 누리과정 실천에서의 자율성과 다양화

보육 및 교육과정을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보육 및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과 철학, 운영 방침을 큰 틀에서 제시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가이드라인만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성공은 교사의 실행에 달려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획일적으로 분절하여 운영될 수 없으며 교사가 영유아의 개인차와 가족환경 및 문화, 그 날의 분위기, 기관 및 지역환경 등을 고려하여 융통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사는 교사용 지침서를 가지고 유아에게 전달하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천하는 교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시·도 및 단위 기관 누리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국가 수준의 누리과정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제고라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각 시·도의 지역적 특성과 개별 기관의 특징을 반영하여 시·도 수준의 누리과정으로 개편해야 하며, 누리과정 교사용 지도서를 시도별로 발간하거나 보다 다양한 참고용 자료를 발간하여 지역이나 기관 특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하는 교사와 원장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시간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아의 연령이나 기관에 따른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누리과정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편제 등 기관 운영 특성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따라 달리 편성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여 각각 고시하거나, 공통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통합교육과정이 생활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는 점과 현장에서도 이미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다양한 통합교육과정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계획안 작성을 단순화(예를 들어 연간, 월간, 주간, 일일교육계획, 단위활동계획안 작성을 최소화 하며, 연간계획서나 월간계획서는 행사중심으로 계획)하여, 교사가 실천적 지식에 기반을 둔 교수계획안을 자신이 머릿속에서 진심으로 설계하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임부연, 2017).

셋째, 유아의 “진짜” 놀이는 비구조화된 공간, 비구조화된 시간, 비구조화된 놀이감을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 운영과 편성에서 유아의 진짜 놀이를 촉진할 수 있어야 하며(김미소, 서영숙, 2018) 이를 위해서는 즐거운 놀이를



위한 물리적 환경이 구비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유아 50인 이상인 경우에만 실외놀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50인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인근 100m이내에 있는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은 “전체 어린이집의 21.6%만이 자체 실외놀이터가 있다(김은설, 박진아, 김승진, 2016). 또한 만4세 이하 유아는 낮잠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수면실은 인가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 실외놀이터·수면실이 인가조건에 포함되도록 하여 영유아의 일상생활을 세심하게 고려한 바람직한 보육·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2012)에 따르면 교사가 원하는 교육·보육과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누리과정의 지침에 맞추어야 해서, 행사준비 및 서류작성 등의 업무과다, 연구할 시간 부족, 유치원 어린이집 평가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12시간 보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연구할 시간을 빼지 못하는 현실, 서류작성 및 잡무과다 현실, 누리과정의 생활주제에 맞추어야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교사의 보육·교육시간과 준비 및 평가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며, 교사의 보육·교육 준비 및 평가 시간이 3시간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라. 교사 양성에 대한 제안

교사가 매우 존경받는 전문직이며, 교사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핀란드의 유치원교사 양성과정<sup>8)</sup>에서는 의사소통 능력과 다양성을 강조한다. 교사와 학생은 교육자와 피교육자라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며, 대화의 기본 조건

8) 핀란드의 유아 대상 국가수준 교육과정은 National Curriculum Guidelines on ECEC (출생~5세의 Day Care Center)와 Core Curriculum for Preschool Education(취학 전 1년 preschool or kindergarten)이 있으며, 여기서는 전자의 내용을 서술하였다.

- ①언어와 의사소통(20) : 핀란드어, 스웨덴어,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강조
- ②교육학기초(25) : 유아 교육학, 어린이의 발달과 심리, 변화를 강조한다
- ③교육학전공(47) : 다름과 다양성 대처법(6), 유아기의 이질성, 다문화 교육(5)
- ④유아교육과 예비초등교육 직업과정(60) : 유치원교사의 감각과 운동능력 배양
- ⑤부전공과 자유선택(28)

은 의사소통 능력에 있다는 점을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사람의 낙오자도 만들지 마라’, ‘모두가 필요하다’는 가르침을 배우고, ‘한 명 한 명의 노력이 다 중요하다’는 교육철학을 지닌 핀란드에서는 교사양성과정에서부터 다름과 다양성의 수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손을 사용한 일’로 번역되는 kasityo라는 과목도 주목할 만하다. 이 과목은 한국에서 가르치는 가정과 기술을 포함하는 과목이다. 직물과 가죽을 소재로 한 수공 분야와 각종 공구를 사용하는 기술을 모두 이 과목에서 가르친다(이윤진, 정도상, 2015). 우리나라의 교사양성과정에서 무엇을 담아야 할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마. 교사 연수에 대한 제안

현장 교사들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교육과정의 재구성의 개념과 실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련의 교육이 필요하다. 누리과정 영역별 내용을 설명하고 지도서 활동의 예를 다루는 대단위 강의를 탈피하여, 교육과정 재구성을 주제로 하는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이 함께 배우고 배운 내용을 실천하며 실천한 것을 다시 반성해 보는 학습공동체와 같은 주체적 교사교육(이경란, 이경화, 2015)이 되어야 한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현장의 맥락에 따라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에 대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 참고문헌 >

- 김미소, 서영숙 (2018). 유아의 “진짜” 놀이 경험에 대한 의미 탐구. *유아교육연구*, 38(4), 349-368.
- 김영명 (2017). 영유아 권리 증진을 위한 보육 및 유아교육 혁신 제안. *교육비평*, 39, 424~443.
- 김윤희 (2014). 유아교사들의 ‘5세 누리과정’이해와 실행.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설, 박진아, 김승진 (2016). 어린이집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설, 유해미, 엄지원 (2012). 「만 5세 누리과정」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연구보고 2012-29). 육아정책연구소.
- 김은영, 강은진, 엄혜경 (2017).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개정(안) 개발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미선, 이규립, 윤지연 (2014).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박창현, 양미선, 조혜주 (2016). 누리과정 질 제고를 위한 운영 다양화 방안. 육아정책 연구소.
- 양승희 (2014). 3-5세 연령별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연계성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4, 261-294.
- 유희정 (2016). 호주 아동중심 EYLF의 교육체계와 그에 따른 실체가 누리과정 운영에 주는 시사점.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4), 119-143.
- 윤은주 (2015). 민주주의 실현으로서 핀란드 교육과정 개편이 주는 교훈: 누리과정 개편을 위한 논의.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73-393.
- 이경화 (2016). 3-5세 누리과정의 한계와 유아교육자의 과제. **생태유아교육연구**, 15(4), 1-23.
- 이윤진, 정도상 (2015). **핀란드의 육아정책(II)**. 육아정책연구소.
- 임부연 (2017).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놀이’ 중심 국가수준 유아교육과정 개정 방향 모색. **교육혁신연구**, 27(4), 59-78.
- 조상연 (2014). 제4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초등 통합교과의 발생적 의미. **통합교육과정연구**, 8(1), 181-214.